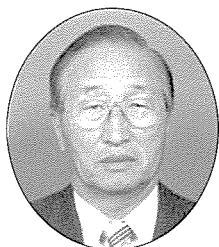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는 올 것인가?



한국터널공학회
회장 정형식

소 위 선진국사회와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사회와는 무엇이 다를까? 하는 질문을 받으면 순간 망설여지기도 한다. 너무나 많은 차이점들을 일일이 다 들 수도 없으나 나는 그 중에서 꼭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싶다. 소위 선진국사회에서는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이 아니면 통용되지 않는데 후진국사회에서는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이 통하고 어떤 때는 합리적인 것에 우선하기도 한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요사이 국내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문제에 토목공사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 경인운하사업, 방사선폐기장건설사업,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통과 터널공사,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폐산 통과 터널공사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 들이며 이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다. 그리고 이들 사업들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계획되었고 가장 합리적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믿고 싶다. 이제 이러한 사업들의 사업자체나 설계가 문제가 된다면 의당히 재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이에 관한 전문가들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데 작금의 정황을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더욱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

토목공사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어도 어떤 사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보편타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자신이 모르는 토목의 전문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경청하여 사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반대여부를 개진하여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정부에서나 심지어 언론에서도 종종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면 “우리는 선진국 되기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도 언젠가는 합리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시점에서 우리도 전문가로서 그 동안 등한시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앞으로 선진사회를 이룩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전문성을 절대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여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토질 및 기초기술사를 보자. 우리는 사이비(?)지반전문가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확고하고 심오한 지반공학지식을 갖고 있는가? 우리 토질 및 기초기술사들이 지반공학문제를 적당히 풀어 간다면 누구나 지반에 관한 공학적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덤벼든다. 일전에 재미교포 지반공학기술사에 가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미국 법원에서는 소송에서 지반공학에 대한 문제가 소송의 쟁점이 될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반공학기술사 의견만이 존중된다고 한다. 우리 법원에서도 지반문제에서는 일반기술자의 의견보다 지반공학기술사의 의견이 우선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토질 및 기초기술사회에서는 죽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무조건하고 기술사의 말만 옳다고 하면 것처럼 우스운 것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부정할 수 없는 합리적인 논리가 있어야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 토질 및 기초기술사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도 조심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남의 전문분야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남도 나의 전문분야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설직 공무원들에게 토목의 전문분야에 대한 설계 또는 시공문제는 전문기술사에게 맡기고 공무원은 건설행정만 하라고 권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발주처의 건설직 공무원이 전문기술사가 하는 영역에도 깊이 관여하는 것을 종종 본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발주처의 행정직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할까? 토목이 별것 아니구나? 전문분야의 지식이 별로 없으면서 전문기술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것 없지. 나도 한 20년 여기서 밥을 먹어왔는데, 우리는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청장직을 행정직공무원이 더 많이 맡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서울시 각 구청의 건설관리국장에 행정직 출신 공무원이 더 많음을 알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토목공사관련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도 행정직 출신 임원이 기술직 출신 임원보다 더 많음을 알고 있다.

전문분야의 일은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안되는 풍토를 만들기에 우리가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토질 및 기초기술사는 그 전문 영역에서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심오한 전문 지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적당히 과거에 하던 방법과 관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단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비전문가들이나 고객에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때에 우리들 전문기술사들은 그 전문 영역에서 대우 받으며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도 우리의 사회가 선진화되어 가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